

투데이 칼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원년이 되길

지난 10~2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 괄목할만하게 확충되었고,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 등의 사회적문제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아파와 산남매, 지하 셋방에 살며 수입없이 병을 앓다 자살한 송과 세모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소실이나 영화에서 일어난 듯한 일들이 현실에서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라는 국정전략으로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민을 복지안전망 안으로 끌어 들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시군에서 읍면 중심으로 확대하여 주민이 찾아오기 더 쉽고, 주민 곁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장수군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

에 맞추어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2018년 장수읍사무소와 장계면사무소에 각각 맞춤형복지 전달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장수읍, 장계면 맞춤형복지팀이 중심 읍·면이 되어 상시적인 발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서비스 지원과 개입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가능하다. 누구든 알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복지 사각지대의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실시 하지만 우리군의 면사무소 사회복지 인력은 1명에 불과하여 주무관 혼자서 모든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작 현장을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복지 수급자를 발굴하기는 물

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도 대상지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장수군은 2018년도에 전체 읍·면을 맞춤형복지팀을 기본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면사무소에 찾아가는 복지 담당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충원인 것이다.

장수군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확충과 함께 읍·면사무소의 현장중심 복지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를 찾아와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가드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수급대상자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한다.

또한 필요한 자원들을 찾아서 연계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읍·면장들의 관심이 필수조건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관건이다. 단기간에 확 바뀔 수 없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연결망을 활용한 점차적인 접근으로 주민과 행정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지역 모든 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군 공무원들은 민간기관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빈 창근

장수군청 주민복지실장



사설

새만금 개발 공사 속도감 높여야

새만금이 또다시 주목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한 때문이다. 특별히 그같은 말을 한 이유는 이어서 나온 말에서 알 수가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전북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어서 문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도 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힘내야 한다. 새만금과 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그 액수가 1조5천1백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전북도는 말한 바 있다. 남북도로 2단계 건설도 12개 공구로 나누어져 추진되는데 3천94억 원의 규모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새만금 2단계 공사는 우리 전북은 물론이고 한국 미래 발전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렇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역할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동북아의 허브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던 것도 기억해둘 일이다. 하지만 그게 온전히 성취되게 하려면 전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예전에도 당부했거니와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실제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가 들어가기까지 긴장해야 한다. 말할 기회가 생기면 목소리도 크게 내야만 한다. 목소리가 작다면 역대 정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정부도 적당한 한계선을 웃고서 개발의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크다.

본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진짜 힘은 돈에서 나온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올리려해도 예산이 축소되거나 집행이 늦다면 모든 게 공염불일 뿐이다. 전북도는 능동적으로 뛰어야 한다. 현정부는 해결해야 할 다른 대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달라 주문했다고 해서, 동북아의 허브를 약속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면서 뛰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사상 최고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라는 보고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관광객이 1109만 7033 명이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해 44만 8956 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전주시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3만여 명이라는 것도 이어서 말했다. 정말이지 놀라운 보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기록과 관련하여 짚어볼 것이 있다. 그들이 순수하게 관광객 맞느냐는 물음이다. 그 많은 이들이 관광객 맞다면 호황을 누리 다른 모든 분야의 사업도 신도해야 맞다. 그게 아니려면 한옥마을을 찾는 모두가 순수한 관광객은 아닐 것이다. 관광객이라면 지갑을 열고 돈을 써야만 한다. 그냥 지나쳐 간다면 솔직히 말해 관광객으로 봐주기 애매하다. 하다 못해 한끼 밥이라도 먹어야 관광객으로 봐줄 수 있을 터이다. 눈 짐작보다는 영업 실적과 돈의 액수를 따져 정확하게 집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민들은 그 어느 때고 한

옥 마을에 기대를 걸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매년 관광시즌이 되면 한옥마을에 대한 기대가 각별해진다. 이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새기려면 한옥마을 관광사업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읍해는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풀이켜보면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했던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관광시즌이 되면 시민 모두의 총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 격려하면서 말이다.

신기원을 해마다 갱신한 만큼 전주시는 노하우를 심분 살려야 했다. 그러면서도 변모해야 할 것은 변모시켜야 했다. 예전에도 말한 바 있거니와 음식점소들의 정직과 친절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도로가 너무 혼잡한데 교통질서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관광객들 중에는 인식 부족으로 휴지나 봉지를 버리는 이가 있으므로 청소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전주시는 숫자의 신기원에만 주목해 들뜨지 말고 관광사업의 질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독자제언

그들만의 서열 싸움

"너무 힘들고 친구들이 무섭게 느껴진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으로 교통 발달 육상에서 투신해 숨진 전주 여중생이 본인의 화상계정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방학 때 잠시 주춤하다가 개학 직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학기 초 화상편성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서열다툼을 하는 등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경찰관까지 힘을 모아 노력해온 결과 피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러 형태의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있어 학기 초는 유관기관이나 학교건강검진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지도로 예방 노력이 절실

히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기간을 만들어,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및 경찰관과 청소년의 1:1 결연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부모, 학생과 함께 논의하는 등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체는 학생들이니만큼 주변인들에 의한 예방책 보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도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학생은 주변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하듯이 앞에서 깨어나려면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

학교생활을 폭력이라는 세계로 받아들이느냐 우정과 화합이라는 세계로 받아들이느냐는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라 생각된다.

이서우김계경철서경무과순경

독자제언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줄음운전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줄음운전이다.

나 자신도 모르게 깜박하는 순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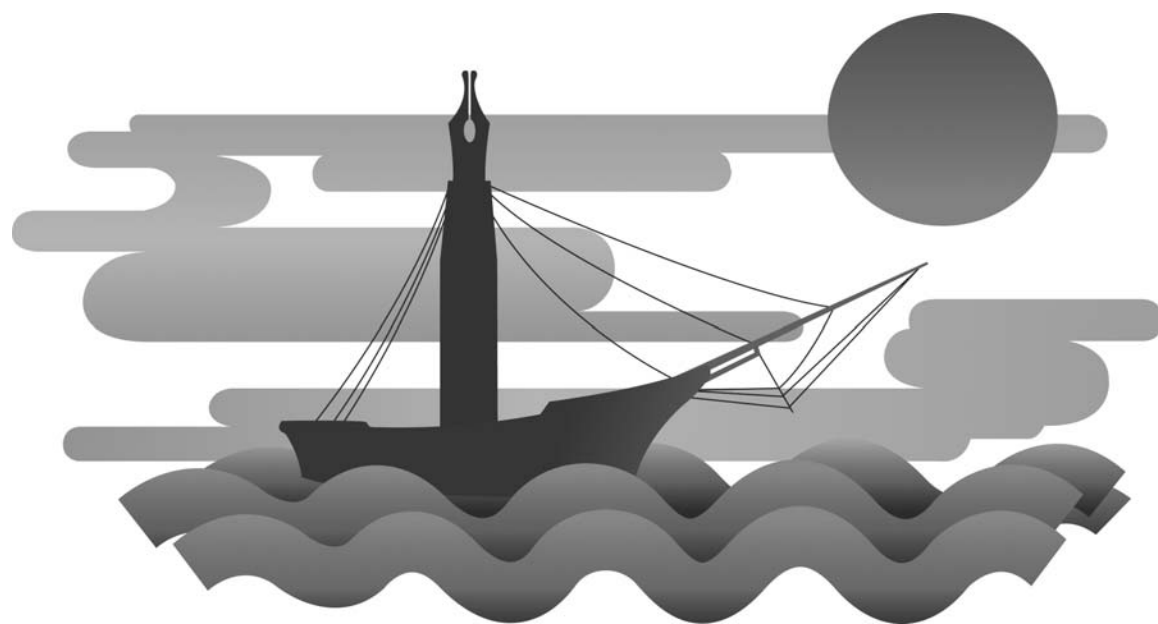
줄음운전은 고속도로 전체사고의 약 31%를 차지하며 치사율은 두 배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줄음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7%에 상응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음주운전보다 사고위험이 1.2배 높다고 한다.

줄음운전 사전 징조로는 예전엔 운전 중 자주 눈을 깜박이거나 하품을 하게 되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를 들어올리기 어려워 차선을 오를까락 하면서 앞차에 바짝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면서 휴게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